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illegible]

知事會議에 與한 總督의 訓示 多約無實의 弊

每年恒例의 道知事會議는 去十五日로 開始되앗도다 會議日程이 五日에 不過하고 또 諸事列項도 總督及政務總監의 訓示指示及諸問에 應答할것과 道知事의 意見陳述兼協議事項에 分하얏는지라 該道知事會議는 何等外部와 交涉의 無할것이오 單純한 行政會議인故로 從來世人의 注目에 上치 안함도 固所當然이라 또 會議의 自體가 可謂形式一片의 觀이 有함은 此等會議의 宿弊어니와 過日의 總督及政務總監의 訓示에 照하야도 明瞭하도다 勿論 兩氏의 訓示를 吾人이 絶對重要視함은 아니나 그 內容이 너무 貧弱하며 또 說하는 政見이 너무 漠然한것을 感함은 吾人이 此點에 잇서 兩氏의 訓示로 發表된 朝鮮總督政治의 正體가 如何히 低迷彷徨하는것을 觀取할뿐이며 또 每年恒例의 道知事會議도 意味가 薄弱한것을 斷定하는도다

齋藤氏의 所論에 依하면 今日世界의 大勢는 民力의 休養과 國富의 充實에 汲々注力하야 維持不足의 觀이 有하다함은 吾人도 見解를 同一히하는바라 卽戰爭에서 平和로 積極에서 消極으로 各國의 戰後收拾은 着々進行中인것은 吾人이 多言을 不要할바요 그 實現의 端緖로 各國의 軍備縮少 行政及財政의 整理는 吾人昭知의 事實이라 그러나 該氏의 論하는바 朝鮮의 特殊事情에 鑑하면 敎育産業交通土木及治安維持의 施設에 大히 積極的 方針을 取치아니치 못할 形勢에 在하다하는도다 그러면 積極方針의 遂行에 對하야 如何한 財源이 有하며 또 그 進行의 方略이 如何한가는 一言도 此치 아니하얏고 다만 冗費의 省減과 整理의 斷行을 論하면서 軍縮과 同一한 性質을 帶한 警務局費는 盛히 擴張을 圖함이 一大矛盾이 아니고 무엇인가 卽齋藤氏의 各自이 積極消極의 兩極端에 彷徨할뿐이며 該氏의 所謂 積極方針이 遂히 有名無實의 結果에 陷한것을 知할뿐이로다 또 有吉氏의 所謂 文化的施設을 高調하야 그 施設의 效果가 顯著한것을 喜悅한다하얏스나 該氏의 誇張하는 效果의 顯著가 무엇인지 吾人은 그 具體的 事實의 發見에 迷惑치 안할수 업도다 以上兩氏의 結論을 要約하면 所謂文化政治의 積極的方針이라는 것이 一種의 羊頭狗肉의 看板에 不過한것이 明瞭치 안은가 勿論今日朝鮮의 實力이 以上兩氏의 所謂 文化的施設을 遂行하는데 不勘한 難關이 有할것은 吾人도 認定하는바로다 그러면 當力의 充實과 積極方針의 遂行이 或은 因果先後의 關係가 有한지 或은 氷炭不容의 矛盾關係가 有한지는 吾人이 玆에 速斷키 難하나 朝鮮總督政治의 文化的施設云々이 畢竟不渡手形의 濫發과 如한 窮地에 陷한것은 事實이로다 吾人은 此點에 잇서 總督府官僚의 平素에 過多한것을 痛論하얏거니와 그 假面이 날로 暴露케된것은 다시 吾人의 多言을 不要할바라 齋藤氏의 良心에 鑑하야 勿論多少의 感이 不無할지나 무릇 政治의 所貴는 信義의 尊重에 잇지 안는가 齋藤氏가 來任當初에 如何히 그 聲明이 宏大美麗한것을 回顧하고 以來四個年間의 實地施設에 對照할時는 누구든지 喫驚할바이라 더욱히 過日의 知事會議席上에 與한 訓示는 如何히 意氣가 銷沈하얏스며 何等의 可觀할 經綸이 無한것은 決코 吾人의 誣言이 아니로다 卽 一方으로 積極의 施設을 標榜하야 그 方略을 示치 못하며 徒히 抽象的 文句를 羅列하야 世人의 耳目을 糊塗코자 함은 此所謂自縄自縛이 아니며 또 宣傳政策의 現實暴露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要컨대 時日의 經過는 萬事의 審判者라 吾人이 다시 喋々할 必要가 無하거니와 다만 吾人의 切言코자 하는바는 從來의 多約無實의 弊를 一掃하고 少約有實의 主義를 提供키를 望하노라

中國思想界의 新現象 (十五)

愚樵 (譯)

孔敎反對論 (續)

考證上의 錯誤 以上은 孫文學說을 獨立한 政治哲學으로 보고 批判한것이지만은 萬若考證方面에서 말하면 所謂孫文學說中에는 多大한 誤謬가 잇다고 生覺한다 孫文氏는『行易知難』의 新學說을 세울 便宜上 正反對되는 王陽明의『知行一致』說을 對照하야 陽明學의 所謂『知行一致』라고 하는 것은『先知後行』과『知易行難』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斷定하고 孫文氏自說은 이와 正反對로『先行後知』와『行易知難』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說明하엿다 勿論 王陽明은 知와 行의 關係를 說明함에『知는 行의 始오 行은 知의 成』이라고 하엿스나 이것을 가지고『先知後行』이라고 보는 것은 誤解라고 할것이다 陽明은 行은 한다시 知와 隨伴할것이라고 하며 知와 行의 間에는 何等의 空間과 時間을 設置하지 아니한다 詳言하면 陽明의 所謂『知』는 外來的 經驗을 基礎로 하는 知가 아니오 生得的 知 先驗的『良知』다 陽明에 從하면 大凡사람은 다 良知를 所有하고 잇는것이다 各人의 이 良知는 卽 各人의 心의 本體오 이는 天理그것이오 聖人의 마음(心)그것이다 然이나 世上에 聖人이 아닌 凡人이 存在하는 것은 그 氣稟이 偏正에 基因함이니 卽 物慾에 掩蔽됨과 天理에 純然한 것이 區別이 잇슬뿐이다 故로 各人이 다 가치 聖人이 되려고 하면 各人이 先天的으로 所有한 此良知를 스스로 그 目的하는 事物上에 體現할 必要가 잇다

이것이 所謂 王陽明學派의『致良知』의 說 卽『知行合一』論의 基調다 이에 依하야 見하면 孫文氏가 陽明學派의『知行一致』論을『先知後行』이라고 解釋한 것은 全然 誤謬라고 아니할수 업다 또한 陽明의 所謂『知』라 하는 것은 各人이 先天的으로 所有하는『良知』라고 할것갓흐면 孫氏가 말한바와 가치 陽明의『知行一致』를『知易行難』이라고 解釋하는 것은 全然히 無意義하다고 아니할수 업다

朱陽兩學混同 이와 가치 陽明學의『知』를『良知』로 解釋하지 아니하고『經驗的知』라고 誤解한 것은 孫文學說의 大錯誤인 原因이 되는것이지만은 萬若 陽明學以外에 이것을 求하면 大學의 所謂『致知』의『知』를 經驗的知識으로 解釋하고『知行合一』論을 論한 學者는 過去에 存在하얏섯다 程伊川及 그 祖述者 朱子는 卽 그 代表的 學者다 程伊川及朱子의『知行合一』論에 依하면 大學의 所謂『致知』의 知는 經驗的 後天的의 知識이오『致知』라는 것은 畢竟 廣汎하게 事物의 理를 探究하야 知하는것이다 行을 伴하지 아니한 徒知는 勿論 適宜하지 못하나 知를 出發點으로 하지 아니하는 妄行도 또한 不可하다 하야 所謂『先知後行』說을 세운것이다 이 省察이 잘못되지 아니하얏슬것갓흐면 孫文氏는 朱子學의 知行合一論과 行에 主力을 置하엿던 陽明學의 知行合一論을 混同한 것이라고 推定된다 卽 孫文氏의 行易知難說의 本旨는 實은 同氏가 非難한 王陽明의 知行合一論의 本旨와 同一하고 또한 同氏가 非難하려고 하는 知行合一論은 實은 程伊川及 그 祖述者인 朱子의 學說이 될것이다 要컨대 考證方面에서 보면 所謂 孫文學說은 根底에서 轉覆될것이다

認識論의 誤解 또한 一步를 讓할지라도 孫文氏가 陽明學의『知』는『良知』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陽明學의 知行一致論을 非難하는것이라하면 孫文學說의 錯誤는 그 認識論上의 經驗論者라는 見地에서 그리된 것이라고 推定할것이다 何故오하면 次에 述하려고 하는 孫文學說의 基調되는 現實主義의 哲學에서는 實際生活改善의 原理는 科學的 知識에 잇다고 生覺하엿슴다 卽 現實主義와 主知主義와는 確實히 接觸이 잇다 然이나 이것을 가지고 現實主義는 主知主義라고 生覺할수는 업다 大蓋 現實派에 從하면 社會生活의 革新이 窮極의 目的이오 自然科學은 이 目的을 爲하야 尊重되는 것에 不過하다 卽中國哲學과 對照하면 現實主義는『先知後行』을 論한 것이 아니오 反對로『先行後知』를 說明한것이다 認識論上 經驗論者에 屬하는 孫文氏가 陽明學派는 生得知識 先驗認識으로 說明한 知 卽 良知의 存在를 否認하는 것은 至當한 일이지만은 所謂 良知를 外表的 經驗을 基礎로 하는 認識으로 誤解한 것은 迂闊千萬이라고 아니할수 업다

先導者 【51】

長白山人

중편(中篇)(四의 一)

승가의 서약이 잇슨지 일년이 지낫다 그 동안에 만흔사람이 죽고 만흔사람이 감옥에 잡혀갓다 나는 그 동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정치뎍 변혁을 말할자유가 업는 것을 유감으로 안다 또 그 배부러의 조선지사들의 정치뎍 운동과 여러가지 계획을 다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것을 더욱 유감으로 안다 대개 이러한 말을 다하라면 버붓은 당당으로 금지를 당할것이오 그리되면 내가여러분에 하라는 중요한말ᅳ리선생을 중심으로하는 운동에 관한말도 못하게될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꼭 참고 다만 써도 관계치아니한것만 주서 쓰랴다 그럼으로 나의 서술은 극히 불완전할것이다 독자여 그 자세한 니야기를 할수잇는 다른긔회를 기다리기로하자

그러나 그러라고 내가 장차 쓰랴는것이 아주 공허한것은 아니다 다만 그 복잡하고 생각만하여도 주먹에 땀이 쥐어지는 눈물지는 당시의 정치뎍 배경을 그리지못하는것이 한이지 부자유하나마 우리 리선생의 인격과 경영과 활동의 골자는 넉넉히 말할수 잇스리라고 밋는다

◇

승가에서 서약을마초고 나려와서 한 일주일 동안 사업의 계획과 방침을 토론하야 확뎡한 후에 리선생과 권목사는 서울에 잇기로하고 다른 닐곱사람은 각々 한도씩을 마타가지고 다방으로 갓다 그네가 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일은 극히 단순하엿다 알아보기쉬웁게 표를 만들어보자ᅳ

(一)미듬만하고 애국심잇는자를 련락하야 백령회에 가입케 하는것

(二)각디방에 누구라고 일홈난 사람을 련락하야 명부를 만드는것

(三)재산 잇는자를 조사하야 명부를만드는것

(四)각디의 산물을 조사하는 것 이네가지뿐이다

미듬만한 사람 하나를 련락하면 엇더한 방법을 써서든지 그와교제할길을차자 더욱 자세히 그의사상과 심지를 알아보아 마츰내는 백령회에 입회를 식히고 그런뒤에 그사람과 늘이서 다시 한사람을 구하야 동지를 만들고 그 담에 그 두사람과 셋이서 다시 한사람을 구하야 동지를 만들고 이리하야 한골에 동지셋이 생기면 그 세사람에게 그골일을 맛기고자긔는 그다음골로가서 또 그와가튼일을한다

그러면 한골을마튼 세사람은 다시 그골안에서 동지를 모호고 명망가와 재산가와 산물을조사한다 이리하야 어든결과는 그도를마튼이의 손을 거쳐 중앙으로 올라온다 그럼으로 한골에 잇는 회원들은 오직 그골에 잇는 두령을 알뿐이오 한골에잇는 두령은 오직 그도의 두령과 회당을 알뿐이오 모든것을 다 알고 안젓는이는 오직 중앙에잇는 회당뿐이엇다

그럼으로 어느곳에서 이비밀결사가 들어난다 하더라도 다른골동지에게는 아모 영향이 업슬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회원은 석달동안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골의 두령과 동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엿다

회원의 의무도 극히 단순한 것이엇다ᅳ

(一)매삭 삼원의 회비를 낼것

(二)회에서 경영하는 교육긔관과 산업긔관에는 반다시 출자자가 될것

(三)각사람이 무엇이든지 돈벌이 하는 직업을 가질것

(四)자녀를 학교에 보낼것

(五)비밀을 지킬것

(六)회기부를 베에나 설것

이 여섯가지뿐이엇다

濟春堂開業拾週年自祝記念

小兒 養育攝生法을 無代金進呈함

◎但地方에는郵稅貳錢을同封하야請求하시고 市內는親히來臨하시오 此는營業廣告가아닌故로服藥與否는不問하고 數三人의各住所氏名同封도無妨하오니 [illegible]

小兒出生되면 肝氣乳滯吐瀉로 靑便驚泣等症으로 辛苦타가 死亡도 或有하니 此原因은 十分의九는 乳母가 小兒取扱이 不完全한故로 本堂에서 小兒攝養根源을 苦心硏究하야 兒患諸君에게 無料仰呈하겟사오니 參考的 壹部式 備置하시면 小兒養生의 妨害가 無하야 共濟壽域케하심을 伏望

內科 小兒科專門 濟春堂醫院 京城鍾路壹丁目 (東亞日報東隣 郵便局東南側)

兒寶舖本 濟春堂藥房 振替京城五壹七五番

본점신용은 점원일동의 생명이옵내다

水晶玉入眼鏡票本

안경 대왕은 명안당

본점신용은 생명으로 생각하옵니다

본점에 주의는 상당한 價格에 良好한 物品을 提供하야 四海紳士淑女諸氏의 칭찬하야 주심을 밧고자 目的하나이다 注文試用하옵소서

物品目錄
一號 水晶十八金張 山脚 玳瑁 一個 十六圓
二號 水晶玉入 十八金張 山脚 玳瑁 一個 十四圓
三號 水晶玉入 十八金張 山脚 玳瑁 一個 十圓
四號 水晶玉入 十八金張 山脚 玳瑁 一個 七圓
五號 水晶玉入 十八金張 山脚 玳瑁 一個 四圓
純玳瑁 天然水晶玉入 一個 九圓
甲 [illegible] 一個 三圓
乙 [illegible] 一個 二圓
水晶玉入 [illegible]
ニツケル 新式 [illegible] 一圓五十錢
안경은 어떠하든지 [illegible] 단주문하시는 [illegible] 송료五十錢을 [illegible]

京城鍾路通二丁目七七番地 眼鏡時計專門商 明眼堂本店 張熙元 白
電話本局三七一七番 振替京城七一八四番

百濟病院
釜山府草梁
院長 醫學士 崔鏞海
副院長 醫學士 江里口春志
電話 二六二七

◎文化的理髮器具大權威?…

兩手刈理髮器 特號 三圓五十錢 / 一號 三圓 / 二號 二圓五十錢 / 普品 二圓廿錢 / 並品 一圓八十錢
舶來レザー剃刀 一圓五十錢
一號 三圓 / 二號 三圓五十錢 / 三號 二圓五十錢 / 並品 一圓八十錢
ランキン 九十錢
一號 武面刀 七十五錢
上ダイヤモンド 七十錢 / 中ダイヤモンド 五十錢
◎理髮用鋏 特上品 二圓八十錢 / 上品 一圓五十錢 / 中品 一圓三十錢 / 並品 [illegible]

△注文卽時引換代金郵便으로送付함◇
△定價表有用이신時는一報次第送呈함◇

京城府進洞百二十一番地 吉川金物支店
京城鍾路通二丁目八三番地 吉川金物分店
電話本局三四七〇番 振替口座京城一〇九七〇番

朝鮮通信中學館

新機運의 四轉 ◇◇ 見하라 中等敎育의 普及이 民衆文化開發의 基礎인 一大偉觀을 ◇◇ 大擴張의 計劃

謹告

我學館은 朝鮮에 初有의 特殊敎育機關으로서 元來海印寺의 維持事業의 一部로 同寺住持李晦光氏가 此를 創立하야 中學程度로서 未就學의 我朝鮮靑年 二千萬 學生을 向하야 恩光을 施하려 할際 그 誠力의 如何는 無論이오 또 兼하야 數年間 維持經營에 巨大한 物質과 貴重한 勢力의 犧牲되엿슴은 世人이 이미 鑑知하는바ㅣ라 여기 對하야서는 僧侶界의 有志諸氏는 勿論 當局者로서는 深甚의 淚를 不禁할바ㅣ라 그러나 昨今에 至하야는 同寺의 事務가 漸次多端하여 짐을 從하야 此에 全力을 用할수 업고 兼하야 直接經營의 難함으로 不得已 別般의 維持方途를 求치 아니치 못할 境遇에 出케 되지라 於間時日이 延遲함이 館務가 殆히 荒漠의 狀態에 陷할새 三千名 學員의 中途彷徨이 如何할 楚歎을 演케되엿는가? 嗚呼라 如斯한 現象은 吾人一般의 貧弱을 說明함이 아닌가 그러나 民衆文化 發展의 大勢는 九轉十生의 活路를 向하야 滔々히 長流하나니 이 大勢에 順應하는 生命을 누가 能히 追奪할가 今般 本社는 그러한 理의 衝動을 感受하야 決코 時運의 狀態를 到底히 그대로 傍觀할수 업섯다 그리하야 本社는 元來 出版業을 經營하든바 呂煥玉君 外 二人으로 組織된 合名會社로서 비록 特異한 自信은 업다 할지라도 朝鮮通信中學館이 最後의 擴張을 圖하기까지는 他業의 着手를 全然 中止하고 現存財産 十萬圓을 擧하야 微衷을 다할 覺悟로써 此를 敢히 引繼하야 經營케 되엿사오니 諒에 大同 僉彦은 一層 愛顧하야 주시믈 仰望

大正十二年五月二日

京城府齋洞八十四番地

合名會社 同友社 白

電話本局二五一八番

中學講義錄

◎第二十一號出現……一時悲運에 處하야 長久十餘日 동안 延期에 延期를 加하던 第二十一回 講義錄 第廿一號도 今般에 비로서 發行되야 雪然의 飢渴에 싸혀 잇던 數千學員의 愁眉를 一時에 展開케 하다

◎目下入學最好機……去四月一日부터 第四回新學期는 開講하얏스나 遺憾處地가 그러케 된 故로 그 旨를 圓滿히 布告치 못하야 學究心이 勃々한 靑年의로 하야금 多大한 遺憾을 抱懷케 하엿다 그 代에 此際를 臨하야 特典을 提供케 되니 入學할 諸君은 好機를 勿逸하라

◎內容說明附規則……을 無代進呈

▲本講義錄의 特色

□朝鮮文으로써 中學全科目을 說明
○講師는 代表的 中學校의 專門諸大家
○講義는 簡易平明하야 誰某이던지 自解能讀
○尙且未盡處는 얼마던지 質疑에 應하야 徹底한 解答을 送致
□修業은 何時던지 自由로 入學하고 滿一個年에 卒業

◎完全한 獨學의 指針……이오 自由勉學의 良師友이라 我靑少年男女諸君아 中學校에 直接登學하지 못한다고 悲鳴하지 마라 登學하야 修學함에 參考書가 업다고 絶叫하지 마라 極少의 經費를 가지고 學業의 滿足을 得할수 잇다 我講義錄을 見하면 諸君의 胸底스스로 燦爛하리라

◇學함에 餘暇업다고 云하는 者는 餘暇 ◇가 잇서도 學치 못하는 徒輩가 아닌가◇

大正十二年五月二日

移轉于 京城府齋洞八十四番地

朝鮮通信中學館

電話本局 [illegible] 振替京城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英露交涉缺裂乎
英國保守黨의希望

英國의最後通牒에對하야露國의回答이不滿足함으로英國保守黨은露國과의交涉決裂을希望하는中이더라(倫敦十五日發)

英航空增軍斷言
樞密院議長솔쓰베리ー氏陳述

英國前大法官「바ー켄헤드」卿은上院에서英佛航空軍의優劣은旣히問題로되지못할程度이라고英國內閣은誰某를勿論하고伊佛兩國과無關心하게經過하야서는不可하다하야政府의注意를喚起하고更히佛國의航空軍에對한報道에依하면兩國航空艦隊가合同하리라는風說은全然無根한것이라附言하얏는데樞密院議長솔쓰베리ー侯는政府를代表하야此에答하야日政府에서는躊躇치아니하고航空艦隊를大히增加할必要가有하다認하노라言하얏더라(倫敦十三日發)

루얼占領反對動議
英下院의豫算討議會에上程

十日夜下院에開催된外務省豫算討議에際하야「루얼」占領의反對動議가上程되얏는데發議者로바ー트씨실卿은此問題에對한佛國의態度가英佛協同行動을不可能케한事는遺憾이라陳述하야余自身으로는聯合國을分裂케하라는傾向이有한諸問題의解決을國際聯盟에附議하야干涉케하는것이安當하다思하노라發明하얏더라(倫敦十二日發)

白交通罷業惡化
兵士全員에動員令

白耳義에在한鐵道從業員電信局員及郵便局員의同盟罷業은形勢가益々惡化됨으로政府는千九百十五年乃至千九百二十二年度의兵士全員에對하야動員令을發하고動員令을拒絕하는者는軍法會議에附한다는旨를發表하얏더라(倫敦十四日發)

米墨會議稍進捗

墨西哥現政府의承認에關한米墨兩國의會議는協同的精神에充滿되야米國委員은其全目的을提出하야墨西哥側의率直한回答을要求한바會議는公開는아니나其經過는時々로新聞紙를通하야發表될터이라더라(墨西哥十五日發)

佛新聞의正當言論
「쿠룹」會社長處罰控訴에關하야

佛國軍法會議의判決에對한「쿠룹」工場社長其他의控訴는十八日「獨逸官憲」에서審理할터인데巴里의「위말」紙는右「쿠룹」重役에對한判決은不法이라고論斷하얏스나獨逸의國有財産을排收한것은獨逸이任意로其賠償金支拂을停止한所以이며決코獨逸人民의壓迫을目的한것은아니라하얏더라(倫敦十五日發)

死傷者多數
米國의颶風과洪水

「텍사스」州「크로라도」發電에依하면颶風과洪水로因하야十九名의死者를生하얏스며又「알칸사스」州「오즈스프링스」發에依하면颶風과火災와洪水로因하야十七名의死者를生하얏다더라

爆破犯人逮捕

一昨年九月「노ー월」街의爆破事件을惹起한犯人으로「노아·펠나시」라는露國靑年共産主義者가警察에게逮捕되얏는데「펠라시」는最近露國에서紐育으로歸來한者이더라(紐育十四日發)

飛行中의火災
搭乘者多數死傷

巴里倫敦間의空中聯絡에從事하든一飛行機는操縱者外에技師一名과乘客約三名을搭乘케하고飛行하든中火災가起하야墜落되야搭乘者全部가死傷하얏더라(巴里十四日發)

無着陸大飛行

米國의米大陸橫斷無着陸飛行大會에서航程二千七百哩를二十六時間五十分四十八秒五分之三으로飛翔하야無着陸의世界記錄을作하얏스며更히小型戰鬪用飛行機十二臺를搭載할만한大飛航船을建造코자硏究中인바右는飛航船에서飛翔하며또한着船할만한것이라더라(東京電)

土匪要求總承認

土匪는四人의代表를送하야臨城에서中國官憲과會議를開한結果土匪側의要求와如히官兵을三十中里以外에退却할事를承認하얏다傳하더라(北京十五日發)

捕虜全部今明釋放

十五日交通部로到達한報道에依하면土匪의代表者는米國人「안더ー슨」氏와商議한結果를가지고土匪의根據로歸還하야會議를開한後土匪의代表는十五日에下山하야更히「안더ー슨」氏와協議하얏는데大體는旣報한條件으로交涉이成立될터임으로十六日中에는捕虜全部가釋放케되리라더라(北京十五日發)

聯合視察委員團派遣

公使團會議의決議로土匪事件에關하야聯合視察委員團을組織하야派遣키로하얏슴으로日本에서도將校一名이參加하기로하얏더라(北京十五日發)

日本態度를疑訝
中國의土匪事件에關하야日本의被害者가無함으로日本의態度가冷靜함으로米國側에서는疑惑하는中이라더라(東京電)

和平裁兵會設立

十五日北京에南方和平裁兵會가設立되야其發會式을擧行한바集會者는革政關係有志約三百名이며十七日中央公園에서宣傳會를開催할터이라더라(北京十五日發)

兩市排日

最近沙市宜昌에排日運動이起하야碇留中인船舶에對하야危害를加함으로船客의上陸이不能하며又宜昌에碇泊中인軍艦伏見의乘組員에게도危害를加하더라(上海十四日發)

一億圓借款
處分如何

興銀, 鮮銀, 臺銀의三銀行은寺內內閣의命을受하야中國借款一億圓에應하얏던바其後同內閣의瓦解와共히日本의對中政策이一變하야右借款契約의目的을貫徹치못할狀態가된外에中國의財政이爾來益々紛糾하야財政上大恐慌이生하야借款元金의償還을不肯할뿐아니라各々의利子支拂도延滯하야昨年外지의延滯利子를新借款의契約에加하야此에對하야剩餘金의一部를擔保로하야一時를彌縫하얏섯는데其後中國政府에서依然借款의利子支拂을實行치아니함으로前記三銀行은其處分에困難하야政府에對하야適當한解決策을要求하얏는데現市來藏相은寺內內閣時代의大藏次官으로잇던關係上大體好意的으로解決코자하는意見이有함으로興業銀行은來七月七日償還期限에達할第一回政府保證의興業債券五千萬圓을借換하기爲하야大藏省의援助를要求함과共히大藏相의了解를得하기에努力한다는바中國政府延滯利子에就하야는此에相當한現金을預金으로부터三行에貸付하야其營業上의收支에合하도록하리라觀測되더라(東京電)

閣議經過內容

十五日閣議는專任海相及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을決定하얏슬뿐이오特別히重大한問題는無한바內田外相의外交報告도簡單하야對露問題와如함은漁業案이解決된後에는何等懸案된問題가無하다하얏스며다만文部省所管의直轄學校職員數名의勅任官等陞敍가決定되얏슬뿐이라더라(東京電)

對露正式交涉
土曜日頃開始乎

十五日閣議에서內田外相은單히外交의經過를報告하얏슬뿐이요日露基本協定에就하야는何等確論한것이無한바此는後藤子가아직「요페」氏로부터基礎案의手交를受치안이한所以인대基礎案의內容은甚히廣汎함으로後藤子는頻々히使者를派하야「요페」氏와交涉을行하는中이나然이나後藤子는十六日頃加藤首相과會見할豫定인故로日本의正式的對露交涉의態度는土曜日閣議에서決定될터이더라(東京電)

露國側의新提案

[illegible]에依하면露國의新提案은一, 尼港事件의責任은露國에서任한事를承認함二, 薩哈嗹은[illegible]利權을[illegible]國防的으로[illegible]經濟問題로[illegible]日露의合辨事業으로하야此를委任하고又「싱크레아」利權도此會社에서買收케하기로할事三, 露國은正式으로承認에關한宣言을何等形式으로든지要求치안이할事四, 舊條約[illegible]

海港日貨排斥

海港情報에依하면同地稅關其他에納入하는一切의納入金은從來日本紙幣로充當하얏든바本月八日以來로突然히此의使用을禁止하고專혀露硬貨를使用케되야稅金納入其他日本人의取引上에不少한支障이有하다더라(東京電)

合倂된私鐵會社
重役人選問題

朝鮮中央鐵道를中心으로한私設鐵道會社六社의合同은旣爲契約이成立되얏스나新會社의重役等은아직決定치못하야各種協議할事項이有함으로十五日午後一時부터門司鐵道局長渠濃部鮮銀總裁鈴木理事의三氏는鮮銀에서重役의人選及資金調達方法等에關하야協議하얏다더라(東京電)

澁澤氏가最有力
東京市長後任

東京市長의候補者에關한第五回銓衡委員의懇親會는十五日午後六時半부터築地新喜樂에서開會되야各派가一致하야澁澤子를推薦하기로決定하얏스며又東京市會의中立俱樂部에서도十五日正午부터工業俱樂部에서總會를開하고澁澤氏를推薦하기로一致可決하얏더라(東京電)

樞密院本會議

樞密院에서는午前十時半부터宮中東溜間에서本會議를開하고朝鮮總督府官制中改正件外三件의諮詢案을可決하얏더라(東京電)

政務總監訓示(二)

近時靑年間에向學心이旺盛함은可喜할바이나此와同時에反省을促할必要가有하도다敎育은人文의發達을圖함에最重大要件임으로總督府에서는此에對하야多大한心力을注하야普通敎育에就하야는既히昨年度에三面一校의制度를完成하고本年度부터는更히須要한處에는任意設置의途를開함과同時에經常費에對하야도他와平均한補助를與하야益々其普及을圖하는中이며又中等敎育에對하야도各道에高等普通學校를配置할計劃을進行하야今에全朝鮮을通하야設置를見치못함이二道에不過하나此等의配置도不遠에實現될터이며敎育에對하야도旣히

高等農林

高等商業高等工業醫學專門學校의施設이有하나進하야大學을設置코자本年度에大學豫科의校舍를建築하야明年度부터開校할豫定이오此와伴하야卒業生이出하기外지는大學本科의設備도完成을見할터이로다如斯히總督府에서는敎育에對하야用力하는中임으로向學心의旺盛함은可喜할바이나現況을見하면憂慮를禁키不能한者이有하도다其一은此等向學心이甚히淺薄한思想에서出한者도有하야個中에는眞히智識을擴充하자는目的보다다만學校卒業이라는名義를得함에汲々하는結果自己가自

私鐵合同과南鐵
秋本京南鐵道常務談

入京中인京南鐵道會社常務秋本茂氏는語하야曰 本社가私鐵合同에對하야中途에脫退함과如히傳하는者가有하나過般東京에서各私鐵代表者가會合하야協議하얏슬때에도合同을絕對로不贊成함은아니나無條件으로參加키不能하다하야自初로調印치아니한것이라弊社가無條件合同에參加치아니하는理由는豫定線의優良한既設工事의少額等을列擧함이아니라玆에縷陳치못할事情이有함이니

財界

不況으로株式의拂込[illegible]大正十年二三月頃부터財界는不況을持續하는中[illegible]

總督府의官吏의努力에만待할바아니라廣히一般住民의協力에依치아니치못할바이로다(未完)

企業資金

金融은或은借入金으로或은種々의方法을講하야日本內地로부터資金吸收의途를講하야[illegible]

結果他家

家族에外지累를及하야[illegible]

家族에게

困難을及하면[illegible]

鮮銀米穀資金

朝鮮銀行四月末日現在米穀資金貸付高는八百六十八萬八千九百十一圓인바前月末現在十二萬九千四百八十九圓이減少인대同月中貸付高及同收狀況을見하면左와如하더라

四月中 同上 四月末
貸付高 回收高 貸付現在高
六六〇 一〇九、〇五 八六八、九一

電信電話收入

四月分京城郵便局電信收入은一萬四千八百五圓六十九錢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五分七厘減少이며又電話收入은十七萬二千三百十三圓九十五錢으로七分五厘의增收이라더라

竣工

[illegible]

商議聯會
第一日

第六回全朝鮮商業會議所聯合會는旣報와如히十六日부터二日間京城商業會議所에서開催하얏는데第一日은午前十時二十分에開會하야[illegible]

客年中郵物取扱數

遞信省의統計에依하면昨十一年度中朝鮮內郵便局所에서取扱한通常郵物은引受數一七七九〇八八二四七通인바此를十年度取扱數에比하면[illegible]

小包郵便減少

四月中京城郵便局에서取扱한小包郵便數는引受一萬三千七百六十個配達一萬七千百一個로此를前年同月에比하면引受一厘配達六厘의減少이라더라

不渡手形減少

京城手形交換所에서處分한五月上半不渡手形은三十三枚로金額은五千一百九圓인바四月上半에比하야枚數는六十八枚가減少하고金額은一萬三千三百十四圓의減少를示하얏다하며兩月分을比하면左와如하더라

	枚數	金額
四月上半	一〇一	一八、四一九
五月上半	三三	五、一〇九

海事法規

[illegible]

海港經由荷爲替

最近鮮銀에서는海蔘威를經由하야日本으로向하는荷爲替의取扱을中止하얏스나當地鮮銀支店은本店의命令에依하야當局及當地勞働代表에게對하야貨物의安全及運賃에對하야確實한保證을與하면當時荷爲替의取扱을開始하리라고通告하얏더라

兩社의滿洲投資

滿洲方面의水田은年々開拓되야漸次好成績을擧하는바最近東拓과三菱의兩社는更히投資의計劃이有하야目下各方面으로調査中이라더라(東京電)

東拓新幹部問題

東拓新任理事尾崎敬儀氏는島田氏의後任으로京城에八木氏, 大連에[illegible]

朝鮮産業

振興硏究會를[illegible]

消息

▲金剛局長氏(侍天敎主)[illegible]
▲尹致昊氏[illegible]
▲開闢社朴達成[illegible]
▲李晟徵氏[illegible]

我聲社創立期

[illegible]

鮮銀支店爲替中止

[illegible]

軍事硏究團解散乎

[illegible]

東拓朝鮮內貸付

[illegible]

橫說竪說

▲丸山警務局長의[illegible]

商況

仁川期米

昨日阪地步調는前場初付三十四圓三十一錢에始하야二節以後五節外지는二十錢臺에서細剋하더니六節부터는連三次同二十一十九錢으로九節엔二十錢臺로止值는[illegible]

▲第一節 當中兩限은다不成이先限은大阪一節八十三錢을傳하야스나三節八十九錢이라始値七十九錢外지高値로二十四錢에止하다
▲第四節 當中兩限은다不成에先限은二十八錢에始하야

初付	二十七圓九十九錢
高値	二十八圓四十九錢
低値	二十八圓六十九錢
止値	二十八圓七十錢
五節	二十八圓八十錢
六節	二十八圓八十六錢
當限	二十六圓五十錢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㊅ 仲買店

商況

京株賣買價
[illegible]

株式市場
大新又下落
京株賣買高

大阪株式延取引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illegible]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棉花
[illegible]

短期取引
[illegible]

仁川日用物價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在外同胞慰問會員芳名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組織化하는衡平運動

진주형평사의그뒤경과

일반사회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대우를 밧지못하고 가진압박을 밧더오든 전조선삼사십만의 소위백정계급(白丁階級)은 「우리도사람이다!」하는 부르지즘으로 「사회평등」의일대운동을 경상남도진주(晋州)에서 이르키엇슴은 당시본보에 여러가지로 보도한바이어니와 그이래에 그운동은 점々구데뎍으로 확대되야 형평사(衡平社)를 조직하고 전조선의 각계급 운동을일으키랴고 여러가지로 협의한뒤에 위선간부 비명이 대구(大邱)등 각디에순회하고 특수계급을 가々호々이 방문하야 가진조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일번으로 선전문수만장을 각처에배포하야 일치단결을 부르지고 각디의대표자를모아 지난삼십일 진주 진주좌(晋州座)에서 성대한 형평사창립축하회(衡平社創立祝賀會)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럿다 그날 개회하기전 오전일시경에는 세채의자동차로 선전지수만장을 시내에 배포하고 오후두시에 각디방의백여명대표자와 기타 회원오백여명이 모히여 성대한 축하식을 거행하얏는데 그회의총대(總代)와 외교부(外交部) 교육부(敎育部)등 각부 당국자들의 열렬한연설을 비롯하야 각처로서 답지하는 축뎐(祝電)은 일본동경방면에잇는 북성회(北星會) 평문사(平文社) 점진사(漸進社) 적긔사(赤旗社)등 여러단데에서도 왓스며 기타유지의축뎐과 이운동의 비용으로 보태여쓰라는 동정금도 다수히들어왓스며 래빈측으로 로동공제회(勞働共濟會) 보텬교(普天敎)등 간부제씨의 축사등으로 오후다섯시경에 식을맛치엇는데 그사에는 림시자금(臨時資金)으로 일만원을 축렵하기로 각대표자회의에서 가결하얏다는데 상당한 재산가도 만흠으로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수잇다하며 상설회관(常設會館)과 교육긔관(敎育機關)의 설치등 기타 금후의방침에 대하야도 여러가지로 협의하얏다는데 이운동은 실로주의할만한것이더라

洪城高普 問題는圓滿解決

일반의소원대로하게다는 도지사의언질을밧엇다고

충청남도 홍성고등보통학교(洪城高普)문데에 대하야는 일반이다 아는바이어니와 이래그학교 긔성회(期成會)에서는 도지사회의(道知事會議)에 출석키위하야 상경중임으로 그회의간부 김병완(金炳鶴)정성모(鄭成模)량씨는 서울까지올나와서 당국과 교섭한결과 당국에서도 지나간허물을 깨닷고 일반의뜻을 존중히녁이여 「삼칠만원만모으면 원만하게 해결하여주겟다」는 도지사의 성의잇는 대답을하얏슴으로 그회의간부들은 삼칠만원의 거대한돈을 모아가지고 지난삼십사일에 도당국을 방문하얏는바 십오일도지사를면회하고 원만한해결을구하야 「회의를맛치고 돌아가서 일반의뜻대로 하여주겟다」는 대답을 엇엇슴으로 오래동안 말성만튼 문데는 이에 락착이되야 불원에 깃분소식이 들니게되리라더라

滿都의人氣를集中하는 全鮮健兒의奮戰

대수의추첨은십오일에결뎡

「천데유회의 데사회 야구대회는 임의다수한긔대와 찬동아래에 모든준비가 착々진행되야 래지십오일하오네시부터 시내 송현동(松峴洞) 데유회본부에서 대렴의추첨식이 거행되얏다 시각이되매 회원고원훈(高元勳)씨가 등단하야 만장한단데대표자에게 간단한 례사를베풀고 추첨을 개시하얏는데 중등학교편은 휘문군(徽文軍)과 배재군(培材軍)이 상대가되고 그외의 중앙군(中央軍) 정주오산군(定州五山) 중앙긔독교청년회학관군(中央基督靑年會學館)의 세단데는 부전승(不戰勝)이 되얏스며 청년단(靑年團)편은 대구청년회야구단(大邱靑年會野球團)과 …… 에 경성의학교와 배재(培材)청년운동부와는 부전승이되얏다 심판원으로는 종래의 여러가지 폐해와 불란을 보하는 불편부당한 심판을 나릴 터디에잇는 데육회 권속심판원으로 윤치영(尹致暎) 리의용 제씨와 리석찬(李錫贊)씨에게 촉탁하기로 결뎡되엿스며 예선은 삼회승부로 결승전만 구회로 연장할터이라더라

各團體選手 한곳에모여서간담

해마다 야구대회를 여러왓스나 한번도 각단체가 일계히 한곳에 모되여 간담을하야 본일이 업슴을 유감으로 역이는 조선체육회에서는 특히 금번 …… 시부터 시내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개최하얏는데 각단체의 선수는 각々감독자의 인솔하에 모도혀 천과재조를다하 …… 죄업는우승을 난호와 간친의 정을펴고 인하야 다과의 간략한 음식이잇슨후 곳산회하얏더라

豫選戰은今日부터

오전여덟시에입장식 / 입장권은삼광사에서

만도인사의 기다리든 야구대회는 금십칠일로 시작하는바 임의 첫싸홈은 금십칠일 오전여덟시부터 시내 배재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장쾌히 개최될터이며 첫날이되는 금일에는 각학교운동장에서 데육회로부터 입장식(入場式)을 거행하고 뒤를이워 휘문고원 단데가 싸홈의시작이될터이며 입장권은 시내 견지동(堅志洞) 삼광사(三光社)와 운동장에서 팔터이니 미리사고자 하시는 분은 삼광사로 가시는것이 조흘터이며 료금은 보통삼십전 학생십전으로 날마다 한장식 새로사야 한다하며 특히 관람할 일반은 이와 응원단에게 부탁할일은 위원의 직무상지휘를 공동리익을위하야 절대복종할 일과 위선 선수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심판의 판결에 불평을 말일이라더라

…… 위원씨명은 아래와갓더라

執行委員長孫致洛
執行委員徐光昊外十七人
庶務係姜琯模宋南熙(常務)
會計係河東剛鄭宋燮(常務)
宣傳係徐光昊外十二人
會金監査委員吳漢雄外十二人
會金保管委員은會計係에兼任

東林驛에雨雹

삼농사는전멸

경의선동림역(京義線東林驛)부근디방에는 음력지난 이십팔일에 때아닌 우박이 한시간이상이나 계속하야 왓다는데 이로인하야 그부근의 큰소산인 삼(麻)작은 전멸되얏다더라

仁川事件發表

십칠일에경찰부에서

마권 인천(仁川) 소사(素砂) 경찰서에서 모대사건의 단서를 엇어가지고 중대범인두명을 데포하는 동시에 동서에서는 계속활동하야 인천시내에서도 수명의청년을 데포하고 다시경성에까지 출장하야 수명의청년을 데포하엿다함은 본보에 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이사건은 그동안 인천경찰서와 경긔도경찰부와 협력하야가지고 사건을 조사하든바 임의 그사건의 조사를 마치엇슴으로 금십칠일에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이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발표할터이라더라

暗夜에衝突하고 短刀로찔러

범인은술취한자

경의선사리원동리(京義線沙里院東里) 일백이십구번디에사는 고덕빈(高德彬)(二七)은 현금사리원인쇄소에서 일보는사람으로 오월십구일에 열니는 사리원시민 대운동회에 참가코자하야 매일 밤마다 시내로 도라다니며 경주의 연습을 하든바 지나간삼일밤에도 역시 련습을 하다가 맛참 …… 술집에서 나오는 술취한자 두사람과 부듸치매 …… 필경 단도로 찔니엇다더라

昌信洞强盜의 유력혐의자데포

창신동(昌信洞)에서 강도사건이 잇슨뒤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계속하야 범인을 데포하고저 혐의자를 모조리 인치취조하더니 재작십오일 동대문밧 안감내(東大門外安甘川)부근에서 가장유력한 혐의자를잡고 계속하야 피무든것을 쌔라버린 흔적이잇는 두루매기와 적은 칼한개를 증거물품으로 압수하얏는데 필경 진범이겟다더라

警察部의活動

강도사건에두통

지나간삼월이래로 시내 각처에는 강도사건이 빈발하야 인민의 피해가 적지아니하되 그범인은 데포되지못하야 사법경찰의무능을 비난하는소래가 점々놉하감으로 경긔도경찰부에서는 김(金)형사과장이 얼마전 수명의 형사를 의정부(議政府)방면에 파견하야 범인의 자최를 수색하든바 요사이 유력한혐의자 여섯명을 데포하엿스며 다시 작십륙일 아참에는 종로서에서도 한명을 데포하얏는대 ……

民大學地方部

황해도송화군에서

황해도송화군(黃海道松禾郡)에서는 민립대학송화디방부(民立大學松禾地方部)를 조직코자 각면유지가 지난 십일일 송화청년회관(松禾靑年會館)안에 회집하야 군민대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하야 디방부를 조직하 ……

氣候關係

한편으로생활의복잡한까닭

이에대하야 등본경긔도보안과장(藤本京畿道保安課長)은 말하되 본래해마다 봄철여름사이에는 시긔의관계와 일긔의영향으로 사람의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을 거스리기 쉬우며 무슨일에든지 흥분하기 쉬운터임으로 이와가치 자살하는사람이 만흔것이요 년래의통계가 오월륙월 두달사이에 자살을하는자가 데일만흔것을 보아도 짐작할수잇스니 작년중에 경긔도관내의 매월자살수를 비교해보면

▲일월중 십륙인
▲이월중 십오인
▲오월중 삼십오인
▲륙월중 삼십칠인
▲십일월중 이십일인
▲십이월중 십륙인

결국 오륙두달동안에 자살수가 데일 만흔것을 알수잇는것이요 그리고 자살자의수가 해마다 느러가는것은 실로히 암담한사실이라더라

南山에山火

다행히곳꺼버렷다

재작일 오후세시 삼십분경에 신뎡병원(新町病院)남쪽에잇는 보안림(保安林)에서 불이이러나 열두평을 태이고 동사십오분에 진화되얏는데 원인은 담배불인듯 하다더라

京城急設電話

신청자가만타

지난십사일부터 시작하야 닷새 동안 접수할 경성우편국의 급설전화신청(京城局急設電話申請)은 날마다 쇄도하는모양인데 이제그수효를 보면 첫날은 륙백삼십오통 그다음날은(十五日) 오백삼통인데 만일 이와가치 작고 신청하게되면 닷새동안에 삼천통이상에 달하리라는데 실제가설할 수효는 팔백개밧게 안된다더라

頻頻한厭世自殺

또청년남녀두사람이자살

첫여름을 잡아들면서부터 시내 각처에 자살하는사람이 거의날마다 잇게되얏다 작십륙일 상오 삼시삼십분에는 시내신뎡(新町) 륙번디 흡월루(吸月樓)에잇는 일본인창기 송강매자(松岡梅子)가 자긔와 사랑하며 지내는 일본청년모와 뜻과가치 맛나지 못하게된것을 깁히 비관하야 자살을할목뎍으로 초산은이라는 약을먹고 신음하는것을 즉시 발견하야 그부근 신뎡병원으로 다려다가 응급수단을 베푸러서 목숨은 구하얏스며 시내홍파동 오십오번디(紅把洞)에사는 양재찬(梁在瓚)은 아즉 장가 들지안은 청년으로 한성권번의 기생노릇하는 박유순(朴有順)에게 첫사랑을쏘다 별々수단을다하야 돈을 써왓스나 마츰내 박유순의 포주가되는 리창곤(李昌坤)은 맛날적마다 돈을쓰지안코 계집에게 다닌다고 청탈이 만흠애 세상을 비관하야 재작십오일밤아홉시경에 비상을마시고 마츰내 이세상을 떠나바리고 마랏다

度量衡器檢查

삼분일은불합격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지나간십사일부터 그관내에대한 도량형(度量衡)검사를 행하엿는데 전데를 통하야 대략 삼분의일가량이 불합격이 되엿스며 그불합격된것은 모다 …… 리라더라

牛七頭를窃盜

형데공모위소도적

경긔도 안성군보개면(京畿道安城郡寶蓋面) …… 오보(吳寶)는 그아우되는 오보명과 공모하고 …… 부터 금년까지 여주 리천 룡인 안성 네고을에 도라다니며 소일곱머리를 절취하고 교묘히 몸을 피해다니다가 금번에 안성경찰서에 데포되야 취조한후 수원검사국으로 보내엿다더라(안성)

押收한爆彈의 爆發試驗

십팔일오후에

경성디방법원 검사국(京城地方法院) 주최의 폭발물폭발시험은 오는 십팔일 오후한시경에 룡산공병대 폭파작업소(爆破作業所)에서 시행할터이라는데 이것은 작년경긔도경찰부와 신의주(新義州)경찰서에서 의렬단(義烈團)원을 검거할때에 그들에게서 압수한 폭탄에 대하야 그효력을 시험하랴는것이라더라

寡婦를誘引하야

구십원에팔어먹어

개성군상도면(開城郡上道面)에 사는 박경래(朴敬來)와 시내황금뎡이뎡목(黃金町二丁目)에사는 김태석(金泰奭)의 두사람은 당단의 홀며느리 박분녀(朴粉女)를 유인하야 다른사람에게 시집보내랴고 지난 이월십이일에 박경래는 권디 최순옥의집을 차자가서 최순옥과 박분녀를 보고 개성군에 사는 박분녀의부친 박창진(朴昌鎭)이 방금신병이 위독하야 생명이 경각에 달렷슨즉 자긔와함께 속히가자고 하야 밀경은 그다음날 아츰에 박분녀를 다리고 그집을떠나 개성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박분녀를보고 말하기를 사실은 너의부친이 신병이잇는것이 아니오 나에게 부탁하야 조흔곳으로 시집을보내라하기에 너희시집에서는 그 사실을 말할수가업는터이라 부친의신병이 위독하다하고 너를 다리고온것인즉 여러가지 생각을말고 내말대로 한곳으로 시집가라고 감언리설로 꾀인후 필경은 그를 자긔집으로 다려다가 김태석과함께 그녀자를 황해도연백군해월면송계리(延白郡海月面松溪里)로 다리고가서 그곳 조문복(趙文福)에게 현금구십구원을밧고 팔아먹은 사건에 대하야 경성디방법원 개성지텽 ……

上海國民代表會議 軍事上決定

십팔세이상은다군대에

상해(上海)에열닌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는 지난달이십삼일에 다음과갓흔 조건을 결뎡하얏다더라 (상해)

一「십팔세이상 사십세 이하의 남자는 모다 병역에 복무할의무가잇슴 다못 지원자에 대하야는 남녀와 년령의 차별을 행치아니함
一「교육상 뎍당한곳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고 또는 외국에 군사유학생을 파견할일
一「군비는 세입총액의 삼분의 이로함 다못 군대가지고 네임의대로 군자금을 모집하지못할일
一「현재각처에잇는 군무긔관(軍務機關)은 일절페지하고 이후에는 개인혹은 단데에서 군대를 사설하지못할일 다못 페지의시긔는 군사의 제도를 시행한때로부터할일
一「기타맛가지

少女轢傷

시내 운니동(雲泥洞) 일백삼번디에사는 김소사(金召史)의 장녀 리언년(李彦年)(一〇)이 외창성동(昌成洞) …… 에잇는 죽내정남(竹內政男)(二三)의 자면차와 십오일오후 오시오십분 시내창덕궁(昌德宮) 압해서 충돌이되야 언년이는 머리에 상처를밧아 즉시 안국동 …… 병원으로 다려갓는대 치료사일간의 진단을밧앗다고

노름하다잡혀

시내 본 ……

電車又傷人

고양군독도면신당리(高陽郡纛島面新堂里) 일백칠십번디에사는 리성녀(李姓女)는 왕십리로 향하는 일백칠십호면차와 충돌되야 리성녀는 귀와머리에 상처를밧아 즉시 시내경성병원으로 다리고가서 응급수당을 베푸럿는데 전쾌하기까지 일주일동안이 걸닌다고

친구가도적

갓치잇든친구의돈을훔쳐가

만주안동현(滿洲安東縣)에두고 얼마전 서울에올라와서 시내 태평통이뎡목 일백구십구번디(太平通二丁目一九九) 가등하숙옥(加藤下宿屋)에 머물러잇든 시야신태랑(矢野信太郎)은 작일오전다섯시경에 한방에 갓치잇든 대석송이랑(大石松二郎)이가 잠자는동안에 현금일백십오원을 훔쳐내엿는데 즉시발견되야 소관본뎡서에 인치되얏다더라

巡査가婦女强姦

고소는무리취하

……

進行中列車에投石

범인은수색중이다

……

嬰兒에게양재물

……

怪火原因은謀陷策

맹산군에맹랑한사건

평남 맹산군원남면 ……

民大巡回委員發程

한경북도에향하야

……

東亞共產黨事件

……

天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五十三分 / 日入 下午七時十三分

❤휴지롱 ……

取消申請 …… 敬啓 五月 …… 東亞日報社 貴中

부인약

태양됴경환

부인의모든병은다ー월경부죠로좃차 이러남이다 쳡도덥도안이하야 약효 배승한 이때에 한시밧비 이ー「태양됴경환」을잡수시요 부인의모든병이 봄눈슬듯 업서지고 신테가 건강하야 자녀생산을 잘ー하심이다

약가 한달서 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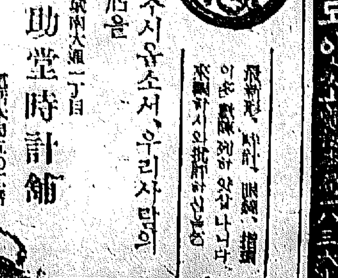
파는본집 화평당약방 리응션

眞正한奇藥 …… 本藥으로 特効보는症 …… 慶和堂藥房 金拾圓也

安城慈善團에感謝함

洋畫科硏究生募集 …… 藝術學院

同情하야주시옵소서 우리자랑의 經營인本店을 友助堂時計舖



京城府公平洞 西洋料理 太西館

爆發彈

一幕脚本 —(二)—

등장인물
고리박사
민부인 (박사의매데)
복순이 (녀하인)

장소는
영국어떤 시골에사는 고리박사의 도서실이오 때는 일천구백십구년 이른봄날이다 그날밤 일곱시가 아즉도 채워지지안은때 빌란로에 볼음피엿슴으로 방안이 더 뜻듯하고 안온하도한듯하엿스나 부즈런하게 살님을 잘하는부인네의 마음에도 흡족하도록 애쓰하여 보이지는아니하엿다 한가지만 보더라도 의자도트지더는곳이 기다만한 우에 아모케나 더러켜 잇엇스니 그는박사가 쓰고 내여던진두엇던것인데 집어치우라는말이 업스면 언제든지그곳에 잇섯슬것이니 박사의명령이업시는 누구나 함부로 방을치우지 못하엿다 방가운데에는 커다란 상이한개노히엿고 그우에는 박사가연구하는 과학긔구가 느러노혓는데그쪠에 박사가 커다란 조희에화학법식을 쓰노라고 긔구들은한편으로 모려노핫다 벽우헤는 폭발탄의 부분을그린 그림이 걸려잇고 비행긔부분의 도형도 걸려잇스며 밖한편에는 쐐퓰긔와 화박사 고리선생은 나히오십삼이나 되여보이는데 상엿해한비행긔 모형이 노히여잇엇다 와서 실험한경적이 조화된지만 죽한해도를 보이엇다 박사의위엄은 강직하야오순소리 한마디를평생에 아니하고 눈은 괴상스러케 반작이며두입술은 사오납게생겻스나 다행이 수염이만히나서가리웟다 그러나 평시에보통사람이 잇다금볼때에 박사가 악인으로는 생각지 아니하얏슬것이니라 도모지 남을해하려하는사람으로 보지안코 자긔일에만 착심할따름이오 남의일에는 상관치아니하엿다 다만정이나는에는악독한본성이 탄로되야자긔일에방해를당하면승량이의으르렁소리를치는버릇이잇섯다 박사는자긔주의자임으로자긔일이외에는 흥심상관하고실험에필요한때에는안방이라도맛기지아니하는성미를가젓다 글시를쓰면서훗자무엇이라 중얼거리엿는데 중얼거리는소리는 성도낫다가 다서만족을 어든것이다 자긔일에 착심하면 누구가 방문을두다려도듯지를못하엿다 실험하다가 발견한것을 깃거하는때에 방문을여러번 두다리는소리를 드릭다

(박사) 조타 조타 내가필경은아라내고야 마럿다―(방문을뚜시 두다린다)응 드러와 드러와

「문이열니면서 사십세나되여보이는 녀하인복순이가 드러온다」

(박사) 복순이냐 무엇을 그러니

(복순) 민부인에서 엿주세요 차를 올녀다드릴가요 아래층으로 나려오시렵세요

(박사) 부인에서도 오셧니

(복순) 비 뎡거장에서 선생님을 기다리시다가못하야일긔가하도 치우닛가 자동차를타고오셧다고하세요

(박사) 내가 가라고하엿지만 붓주해서 이 치우나

(복순) 그리하셧나요 차를 올녀올가요 나려오시렵닛가

(박사) 응컵실은 치음지안으냐 여긔서먹겟다 올녀오시라고 엿주어라 여긔는 붐도피웟고또 이야기할말슴이 잇다고하여라 내실험이 성공되엿다고 엿주어라 복순아

(복순) 그럿슴닛가

(박사) 그려라 그러나 너가른사람에게말하면 아러듯지도 못하겟스니 어서가서 민부인께나 엿주어라

(복순) 그리하겟슴니다 「가라고 도라스는데」

(박사) 가만 나 잇거라 부인에게 아직 내실험성공을 말슴할것 업다 내가 말슴하겟다 내입으로 하겟다

(박사) 부인이 드르시면 나와다름이업시 조와하실터이다

(복순) 박사안으로 갓가히오면 부인에서 오늘은 아조 깃버하지 아느세요

(박사) 깃버아니하서 그것이 무슨소리냐 나는깃버하지 아니하니

(복순) 비 그리치만―

(박사) 그러면 무슨 생긴 소리를하니 내가깃버하면 누구던지 깃버할수가잇지

(복순) 삼년전에 부인의 자데가 전장에서 도라가셧슴니다

(박사) 오 그러쿠나 내가그것은 이첫섯다 그런말을 언케하지던지 생각할수야잇나

(복순) 부인에서는 아들을 죽인일을 너무 감정이 만흐시다

(박사) 그렇지만 부인은 너무감정이 만흐시다 죽은아들을 슬허하겟지 대체녀자는 남자보다 슬허할시간도 만치 나와가든남자야 그런시간이 어듸잇나 슬허해도쓸데업다 복순아 뎡거장에서 맛나뵈일것을 잘못되엿다 내가위로는 하여드릴것을 그랫다 그러치만 나의실험은볼가볼 웃음내여야하겟다

(복순) 그러시겟슴지요

(박사) 아들죽은것을 그러케 허하지마겟스면조켓다산사람이죽은사람을 너무 생각하는것이조치못한일이다죽음을보다 생명에자미를 더부치시면 조켓다 그러나부인은 녀자시오 어머니시니까그리하신다고파히허망할수도업지 내가 나의 실험이 성공하엿다는 소식을 말하면 얼마큼 위로가되겟지 내생각에도 그러치아니하냐 나는 그부인의오라비니까 나의성공에위로될만하지아느냐

(박사) 그러면 올라오시라고 엿주어라 차를나와가치 마시자고 엿주어라

(복순) 네 그리하겟슴니다

(박사) 홍차 복순아 내가뎡거장에서 맛나지못한것을 매우걱정하드라고 엿주어라 그러면 위로가 만히 될것이다

(복순) 그리하겟습니다 『문으로 나아가다가 우둑서서 박사를 도라다보며』부인께서 정말조치아니해 하세요아들죽인어머니시니까 잇지를 못하세요

光州小作聯合 講演과決議

光州小作人聯合會에서는去十二日講演會를當地興學館에開催한바聽衆滿場의盛況을呈하얏스며左記演題下에各演士의熱烈한講演이有하얏는데特히當地某大地主는方今農時臨迫에數百斗落의小作權을移動코저하얏스나同講演會開催宣傳의結果인지其地主는該小作權을全部移動치아니할事를自進言明하얏는데此事由를一々히公布하얏스며同會가去四月二十九日에地主에對하야要求等을決議한것은如左하더라

▲演題와演士左右

一,本會事業紹介 文泰坤
一,農村生活에對한感想 申東浩
一,論告 徐禹錫
一,不良地主에對하야 徐廷禧

▲決議案

一,一般이公認할만한過失이無한境遇에는小作權을移轉치못할事
二,小作料는四割(十分之四)以內로할事
三,小作料分配方法은坪刈로할事
四,小作料運搬은一里以內로할事
五,斗量은必히平木(굉ㄱ대)를使用할事
六,堤堰,防築等修理費가一圓以上에達할時는地主가負擔할事
七,舍音의中間小作을廢止할事
八,大正三年度以降의地主가小作人의게收取한地稅及公課金은各小作人의게還付케할事(光州)

仁川在庫穀物 十二日現在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當地六銀行五月十二日現在穀物在庫數量은如左한바玄米는前調보다三千八百十九石이增加되엿고其品別數字는如左하더라

玄米	四斗入	二〇四,七八八叺
同	五斗入	一〇,〇四六
白米	四斗入	二,一九五
同	五斗入	二〇〇
同	七斗入	三一三俵
大豆	四斗入	七,四四八叺
同	七斗入	一,八七六
小豆	五斗入	七三
同	七斗入	五〇俵
小麥	四斗入	六,四五三叺
同	五斗入	一,三三九
同	七斗入	二三五俵
綠豆	四斗入	一九〇叺
同	五斗入	二三
同	六斗入	四〇俵
同	七斗入	二一
正租	俵入	三六,七一五
同	叺入	三,七六〇叺
折米	四斗入	八,七八八
同	五斗入	一二三
粟	七斗入	五,六二五袋
黍	七斗入	九八〇俵
蕎麥	四斗入	三九八叺
糯麥	四斗入	二,〇〇五
同	五斗入	五七
外國白米		一,三六三袋

(仁川)

裵和玉君金牌受領

木浦府務安通菓子商裵和玉君은當地에서十餘年間菓子製造에精美한硏究를하야오든바去四月九日日本福岡縣菓子組合主催第五回全國菓子飴大品評會에君이出品한「平和羊羹」은一等에當選되야金牌를受領하얏더라(木浦)

順天에地稅返還

全南順天郡住巖面農民大會에서는會長趙英浩氏以下諸任員이各地主를訪問하고十一年末에各小作人으로부터바든地稅金返還을請求한結果地主及地主代理人들은陰曆四月晦日內該稅金을農民大會를經由하야返還하겟다고返還契約을한地主及地主代理人의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

張蕙湖 仙岩寺 阿檜城 趙圓烈 徐廷禧 任泰宋 龍浩 金榮云 金泰郁 李吉文 黃潭明 李春成 任仁參 金成初 徐源培 孫斗愈 姜景濱 金雨潤 金雲岳 文永昊 和卿郡柳鎰漢代理安瓚燮 林鎬一 羅鳳煥 吳啓沃 谷城郡孫鍾鎭代理朴南植 趙萬植 金在宇 沈鼎澤 趙重九(順天)

茁浦普校新築竣功

全北茁浦公立普通學校는校舍의不足하야過般工事費一萬九千七百圓으로新築中이더니六月一日부터는通學하게되리라더라(茁浦)

江西新興夜學設立

江西郡江西面德興里에는從來敎育機關이無하든바今般崔亨相氏外三人의發起로夜學을設立하얏는데就學生이五十餘名에達하며此를三組로分하야敎授中이오入學志願者가漸次增加하는中인데校舍는有志人士의同情과後援을엇어一層擴張하리라더라(江西)

浦里明星夜學新設

江西郡草里面浦里裵志道氏는農家靑年을爲하야今般夜學을設하고校舍는特히自己의私宅全部를修理使用하고敎員은當地普信學校敎師裵日道韓萬錫裵昌鎭三氏가此에當하야每日午後六時부터十時外지敎授하는中인데現在男女學生이五十餘名에達하는盛況이며里內人士는此를一層擴張하야校舍新築과基本金을積立하기로運動中이라더라(江西)

松高學生音樂會

開城松高學生基督靑年會에서는去十二日夜에當地高麗女子館內에音樂會를開催하고會長朴春吉君의司會로趣旨說明이有한後麥梅鍚孃의피아노獨奏鄭士仁氏의풀릇獨奏崔東俊氏의만도린及露西亞人「태라소프」氏의로시아노래林貞烈女史의피아노獨奏黃貞瓊孃의獨唱方啓煥君의바이오린獨奏가有하야十一時三十分盛況裡에閉會하엿더라(開城)

勞動同盟委員會

平壤府驛店里에잇는朝鮮勞働同盟會에서는去十日委員會를開催하고會務進捗에對한方針을討議하얏스며來六月十九日(陰五月六日)을期하야臨時總會를열기로決定하얏다더라(平壤)

載寧署蠅取宣傳

載寧警察署衛生課에서는夏期衛生上에가장危險한蠅을驅除하기爲하야四月二十日에는宣傳文을多數散布하고또一便으로는五月十日外지一合以上取蠅者에게賞品을授與하기로한바同期日外지蠅取總數는五十餘合에達하얏다하며賞品을受한者는安仲洛外二十六人인데一等坐鍾一個二等水瓶一正式三等洗面器及飯當一介式其他는手巾石鹼等이더라(載寧)

咸興市民運動 雨中에도盛況

咸鏡南道廳의主催로去十三日에開催된咸興第一回市民大會는豫定과如히當地孔子廟前運動場에서開催되얏는데當日은天雨임에不拘하고大盛況을呈하얏스며競技도豫定대로進行하얏는데特히長距離競走와如한것은非常한好績을擧하야三十里의距離를五十分에到達한것인데此의優等은朴興鳳君이며昨年咸興靑年會에서占領하얏든優勝旗는今期에道廳에서占하얏더라(咸興)

黃田面農民總會

全南順天郡黃田面에서는去一日에農民大會總會를同面回龍里에開催하얏는데選擧된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會長朴重臨 副會長金昌詢 總務劉桂鎬 趙燦英 張賢基 金柱熙 鄭濟相 趙潤瓊 全仲鎬 趙奉模 李方熙 韓斗錫 高定柱 會計劉東普 書記金學坤 顧問鄭永斗 趙忠材 黃鍾淦諸氏이며此外에同面十六區에每區評議員三人式(順天)

朔寧聯合春期運動

朔寧俱樂部主催本社朔寧分局後援으로春期大運動會를開催할터인데其日時及場所는如左하더라

一,日時 五月二十三日(舊四月八日)
一,場所 朔寧公立普通學校庭場(朔寧)

物産客主組合總會

仁川物産客主組合에서는去十三日新町該組合本館에定期總會를開하고組合長의經過報告와昨年度決算報告와今年度歲入出預算案等議가有한後評議員改選과昨年度成績優良組合員에게記念銀盃贈呈이有한後食堂에移하야歡笑中午後四時頃에散會하엿는바新任評議員氏名及成績優良組合員의氏名은如左하더라

評議員崔應三 徐相彬 李於興 沈能德 金鋪泰 朴道行 金明奎 李仲天 洪在範 鄭泰柏 金奎晃 河相勳 李乘晋 金晋奎 高永憲諸氏이오紀念盃收領한組合員은金錦泰 河相勳 沈能德 朴道行 李仲天諸氏(仁川)

价川警民會組織

价川警察署에서는今般警民會란것을組織하얏는데其目的은警察官의資格으로써不良한行動者를監視코저함이라더라(价川)

● 延禧學生來江 延禧專門學校學生二十三名은南鮮地方을見學키爲하야去十日午後九時當地에到하야市內大成旅館에投宿하고十一日에扶餘로行하야古跡과名勝을視察하고同夜에鎭江船便으로更히當地에來宿十二日午前八時三十五分列車로全州에向하얏더라(江景)

● 大成中學寄附募集 北間島大成中學校寄附金募集員朴相駿氏는去九日役場으로부터當地에到着하야當地靑年會의後援下에二日間有志數十人을訪問하야多大한同情을得하고去十一日에麗水로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順天)

● 津月面長褒賞 全南光陽郡津月面長崔殖鉉氏는在職以來로産業發達에努力한바가不少하얏슴으로今般全南地主會에서는銀杯一個를贈與하얏다더라(順天)

● 今回當地에在한雲峴宮土地管理人으로서賭租를公平히하며地主小作間에圓滿을圖한다하야全南地主會에서는銀杯一個를贈與하얏다더라(順天)

● 全州水道地鎭祭 全州郡全州面의經營인全州上水道는今年度부터敷設工事에着手進行中이더니去十一日午後三時淨水池所在인坤止山上에서地鎭祭를盛大히擧行하엿다더라(全州)

● 大邱嶠南學生見學 大邱嶠南學院生徒四十七人은敎師鄭寅麒氏引率下에當地新羅古蹟을見學하기爲하야去十二日當地에到着하야各名所를見學하고十三日에歸校하얏더라(慶州)

● 沙川公普校開學式 平南江西郡班石面沙川公立普通學校는去十日에開學式을擧行하얏더라(江西)

● 東萊高普生見學 東萊高等普通學校三年級學生一團은當地의古蹟을見學하기爲하야去十日來慶하야各名所를見學하고十二日에歸校하얏더라(慶州)

● 驅逐艦入港 去十一日午前九時에鎭海港의第二十二驅逐隊가當地에入港하얏다가翌十二日鎭南浦를向하야出發하얏는데碇泊當時觀覽者가多하얏더라(海州)

● 金君歡迎宴 今般明治大學法科를卒業하고歸來한平壤金壽哲君을爲하야知友五六十名이去十三日午後三時平壤大成館에서歡迎宴을開催(平壤)

● 公州刑務所看守募集 公州刑務所에서는朝鮮人看守를募集한다는데試驗日字는來十九日이라하며志願者와履歷書는其前日外지受理한다더라(公州)

● 順天衛生講習會 全南順天警察署에서는各駐在所巡査一人式을招集하야去七日부터九日外지三日間衛生講習을하얏더라(順天)

● 重隅普校生修學旅行 价川郡重隅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十一日三,四學年生徒를平北寧邊等地에一學年生徒는附近乾芝山에遠足(价川)

● 平南參與官招宴 平南參與官朴相駿氏는去十一日午後四時在壤各新聞記者와官民三十餘人을招請하야大同江에張宴하얏더라(平壤)

各地靑年團體

庚申靑年素人劇

茁浦庚申靑年會夜學部의經費를補充하기爲하야同靑年會俱樂部에서는新派劇을組織하야興行한바有志諸氏의同情金이七拾餘圓에達하얏다더라(茁浦)

興海基督靑年會議

慶北興海基督靑年會에서는去五日夜에當地禮拜堂에서通常會를開하고諸般會務를處理한後民立大學地方發起委員으로左記諸氏를選擇하얏더라

朴汝欒 宋文壽 李成雨 朴道燦 盧洪植(浦項)

盈德靑年會總會

慶北盈德靑年會에서는四月二十九日에第五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會長鄭才泓氏司會下에各部報告와十一年度決算十二年度豫算通過又는民立大學地方部組織과本會務風部及斷酒禁煙을同盟하기로決議하고任員을左와如히改選하얏더라

會長鄭在鉉 副會長金英漢 總務尹永祥 庶務部長姜璡永 事業部長劉石基 鄭元石 姜文致 徐丙昭 梁丙植 李尚郁 蔡萬 姜浩根 金容燮 金斗 金泉守 書記申會述 評議長盧啓珍 顧問金暢鎭 洪永杓 姜桂弘 江本喜一 文明琦 洪錫植(盈德)

朔寧俱樂部總會

朔寧俱樂部定期總會는去七日同時事務所에서開催되야會務의

定州體育修養創立

定州靑年有志諸氏의發起로體育修養會를組織코저準備中이더바去四月廿八日에創立總會를天道敎靑年會館內에開하고臨時議長金得龍氏의司會로會則通過와任員을左와如히選擧하얏더라

會長金熙鳳 副會長張利福 幹事朴楨奉 蹴球部長金得龍 庭球及野球部長洪鍵信 評議員劉錫桂 ... (定州)

靑年修養會決議

忠南公州靑年修養會에서는去十一日에新任員會를臨時會館에開催하고規則改正及夜學講習所敎授를敎育部에서擔任하기로할事를協議하고同部臨時會에서는「라지오네」와「모르핀」中毒者撲滅에對하야一般民衆과協力하도록努力하기로하고委員을選定하얏다더라(公州)

創立一週年紀念 全朝鮮少年書畫展覽會

本團에서는來六月二十四日創立一週年紀念을祝賀하오며兼하야平素에愛敬하든全朝鮮少年少女의書畫를廣히募集하야展覽하고자하오니各其天眞爛漫한少年少女와는或은本團의趣旨를贊同하시는諸位께서는左記期間內에出品을投送하시옵기를바라나이다

一,題目 作文,習字,圖畫
一,受付期間 自六月一日至六月十七日
一,受付場所 全南靈岩郡靈岩少年團
一,施賞 一等三人 二等六人 三等九人(賞品은少年의必需品)
一,施賞期日 六月二十四日(當日은當選者의게郵送함)
一,當選發表 靈岩靑年會幹部의審査에依하야當選者는新聞紙上에揭載함

後援 靈岩靑年會 東亞日報靈岩分局

主催 靈巖少年團

社告

一,分局의名稱 楊平分局
二,分局의管轄區域 楊平郡一圓
三,分局의位置 楊平郡邑內
四,分局員의職氏名 分局長 朴寅汝 總務 金殷洙 記者 鄭鍾翊

右와如히分局을新設하얏사오니該管內에居住하시는本報愛讀僉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一切을直接問議하시압

東亞日報社 白

一,分局의名稱 高原分局
二,分局의管轄區域 高原郡一圓
三,分局의位置 高原郡下鉢面都井里
四,分局員의職氏名 分局長 孟泰裕 記者 金仁淑

今般本支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右와如히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該管內에本報愛讀僉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托等을直接問議하시압

東亞日報元山支局 白

今般本支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李顯榮君을記者로任用하얏사오니諒認僉位는如此照諒하시압

東亞日報禮山支局 白

羅州自轉車競技大會

日時 五月二十七日(日曜)午前九時
場所 羅州東射亭
申請期 五月十九日
主催 東亞日報羅州分局

麻疾과梅毒

잇스니셔 苦心하시는諸氏는거정 말고藥品으로通知하시오 如何한數年의慢性이라도全治法을無料로進呈함

高麗商會 京城府 振替京城九〇九〇番

養蜂講習

期間 陽五月十八日로 十日間 場所 安州邑 淸南養蜂場 振替京城一〇二七一番

◇第十六封切特別大映畵提供
◇米國코-로社映畵 實寫 魚의鑵詰 全一卷
◇喜劇 曲藝色々 全一卷
◇米國메트로社最特選映畵 社會劇 默示錄의四騎士 全十一卷
原作西班牙 이바네스氏
◇探偵冒險大活劇 連續 판토마 四卷
朝鮮劇場 電話本局三六二〇番

お化粧の順序 美人

衛生的文化生活の必需品

カテイ石鹼 가데이

四十餘年의經驗과最新科學의應用에서生한日本最初의優良石鹼……
얼골거칠지안는가데이石鹼
이石鹼이 면顔이不 荒함니다

整腸 長壽 良劑
ビオフェルミン 비오훼루민
粉末及錠劑有、知名藥店에서販賣
主治 腸加答兒、消化不良、小兒綠便、下痢、慢性腎臟炎、糖尿病、窒扶斯、虎列剌、其他一般腸疾病諸症
粉末三十瓦入 百五十瓦入 錠劑五十錠入 百五十錠入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二十分間에自然黑髮로染色
きらが 赤毛染 ナイス
特長 洗髮時不剝永久不變 枕에不着用法簡易
丹平商會